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느니라”
대만의 새로운 권력 이후 평화, 종교의 자유가 지속되기를



중국 남부 해안의 자치 국가인 대만은 지난 1월 13일 선거를 통해 윌리엄 라이라고 알려진 라이칭더 신임 총통에게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했다. 이에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이 앞으로의 통치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라이 신임 총통은 민주화 노력에 중점을 두고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해 거리낌이 없이 주장하는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 소속이다. 라이 총통의 대변인이자 DPP 국제문제 책임자인 빈센트 차오에 따르면 DPP의 승리는 “총통과 국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것으로 인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대만의 선거 주기는 2년에 불과해 총통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줄 시간이 거의 없다. 대만 인구는 약 2,360만 명으로, 이 중 기독교인은 6.9%에 불과하다. 대만은 흥미로운 디아스포라 구성을 자랑하는데, 이 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만 국민은 약 58만 2,000명에 불과하고 70만 5,000명의 대다수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이다.

2022년 노동부 통계와 원주민 협의회에 따르면, 원주민 인구의 대다수는 개신교 또는 로마 가톨릭 신자이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주로 불교도이고,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주로 이슬람교를, 필리핀 근로자들은 주로 로마 가톨릭을 믿는다.

2022년 미국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기독교인은 “다른 이들의 자유, 임박한 위협, 사회 질서, 또는 공공복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 의해 제한하지 않는’ 모든 종교의 자유 실천과 평등한 대우”를 규정하는 헌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

대만은 국제 종교자유 영역에서 자주 비판받지 않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만의 상황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교적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다. ICC는 새로운 정당이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잠재력이 있으므로 라이 총통의 통치에 희망을 품고 있다.

이에 ICC는 기독교인과 라이 총통을 위해 대만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며 그의 다가오는 임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종교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잠언 8:14-16)

하나님, 새로운 총통으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진 대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앞으로의 통치와 특별히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 보장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이 신임 총통이 나라를 다스릴 명철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의 공의와 다스림을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종교의 자유와 평화가 유지되어 대만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사 많은 디아스포라에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나라가 부흥케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미얀마, 쿠데타 군정 국가비상사태 연장

지난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3년을 맞은 가운데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이 모든 수단을 동원, 반군을 진압해 국가를 안정된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고 외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군정은 지난달 31일 국가비상사태를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며 “국가비상사태 연장은 테러리스트와의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및 유럽연합(EU)은 공동성명을 발표, 미얀마 군부 정권의 잔학 행위 및 인권 유린을 강하게 규탄했다. 미얀마 군부는 반대 세력을 폭력으로 진압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인 수천 명이 구금 고문당하고 사망했으며, 공습·포격·방화 등으로 인해 가옥·학교·보건시설 등이 파괴됐다.

정의를 쓴 쪽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흑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아모스 5:7,14-15)

하나님, 쿠데타 이후 3년간 수많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국가를 위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군정에 정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거짓을 돌이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게 하옵소서.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귀를 막고 오직 권력에 대한 탐심에 종노릇 하는 군정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간계를 멸하여 주소서. 군정의 오랜 압제 아래에 신음하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듣는 기회를 주셔서,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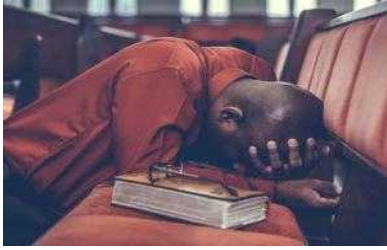
▲ 피지, 마약 경유지로 이용돼··필로폰 4.8t 적발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가 ‘마약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현지 라디오 뉴질랜드(RNZ)를 인용해 뉴시스가 전했다. 피지 경찰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과 20일 발생했던 마약 사건과 관련된 13명을 불법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불법 약물 수입 혐의를, 3명은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자국 통화 및 외화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필로폰으로도 알려진 ‘메스암페타민’ 4.8t을 창고에 보관했다. 현지 경찰은 피지가 마약의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메스암페타민이 해외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피지 당국은 수사 결과 외국인의 연루 사실도 적발했다며 외국 수사기관과 협력해 용의자들을 체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로마서 6:21-22)

하나님, 마약의 경유지가 되어 영혼을 파괴하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피지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악한 일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게 하사 마약을 통해 얻는 재물과 쾌락의 끝이 영원한 사망임을 깨닫게 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피지의 교회를 일깨워 기도로 죄악을 막아서게 하시며 십자가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영생의 기쁜 소식을 운반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리라”
알제리 교회, 박해 속에서 인내와 부흥 이어가



알제리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실천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최근 미션네트워크뉴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알제리 교회는 정부의 강제 폐쇄와 반대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비무슬람이 무슬람을 전도하는 것은 알제리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북아프리카 기독교 공동체의 비교종교학 교수 카림 아레즈키는 최근 캐나다 순교자의 소리와의 대화에서 “지하 교회와 사역이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일부인 박해를 통해 많은 문을 열어주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 상황 때문에 지쳐있다”고 말했다. 현재 알제리는 전국에 교회가 몇 개밖에 없어 많은 신자가 온라인이나 지하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

아레즈키 교수는 “1970년대에는 더 많은 알제리인이 주님을 영접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1982년부터 1999년까지 기독교는 성장했고, 청소년, 노인, 남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 카빌리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다. 모든 마을에 지하 교회가 생겼고, 그들은 아랍 지역에서도 성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알제리에서 기독교의 부흥은 1990년에 새로운 세대의 신자들과 함께 시작됐다. 그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를 비롯해 사회에서 좋은 지위를 갖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독교인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박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아레즈키 교수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일자리를 잃었고, 언어와 신체적 학대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족과 사회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도 압력을 받는 알제리 성도들을 위해, 무슬림들이 그들이 보는 기독교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박해가 우리의 신앙을 막지 못한다. 우리는 체포된 적도 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문을 연 교회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을 실천하는 지하 교회가 있다”고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로마서 5:3-5)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지쳐있는 알제리 성도들의 심령에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종종 마주하게 되는 실제적인 압박이 견디기 어렵겠지만 인내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알제리 교회를 통해 무슬림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 프랑스, 여성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규정한 첫 번째 국가

프랑스에서 여성의 낙태를 권리로 규정한 헌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연합뉴스가 외신을 인용해 전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 개정안은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달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개헌 절차가 완료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를 권리로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이에 공화당 소속 제라르 라르셰르 상원 의장을 비롯한 보수 의원들은 프랑스에서는 낙태 행위가 위협받고 있지 않다며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프랑스는 일반 법률로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히브리서 12:25,28)

하나님, 음행을 피하며 생명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태아를 뱃속에서 살인하는 일을 법적권리로 지지하는 첫 번째 국가로의 걸음을 떼고 있는 프랑스 정부를 꾸짖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우선한 사람의 권리와 육신의 소욕은 허망할 뿐 아니라 영혼에 올무가 되어 심판과 멸망을 피할 길이 없으나, 말씀의 경고 앞에 돌이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에 반응하는 증인들을 더 일으켜 주시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경외하는 물결을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 수단·남수단 분쟁지역서 무력 충돌로 최소 52명 사망

아프리카 수단과 남수단의 분쟁지역인 아비에이 지역에서 부족 간 무력 충돌로 유엔평화유지군 대원 1명을 비롯해 최소 52명이 숨지고 64명이 다쳤다고 AP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지역 정부의 불리스 코흐 공보장관은 “누에르족의 무장 청년들이 토요일(27일) 저녁 응옥 덩카족 마을을 공격했다”며 “동기는 토지 분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수단 남부와 남수단 북부 접경의 아비에이 지역은 원유 매장량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있다. 수단과 남수단이 서로 차지하려고 수시로 충돌하는 탓에 ‘아프리카의 화약고’로도 불린다. 수단과 남수단은 협상을 통해 아비에이 지역의 최종 지위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협상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특히 남수단이 지난해 3월 이 지역에 군대를 배치한 이후 무장 과한의 공격을 비롯한 폭력 사태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16-18)

하나님, 토지 소유를 둘러싼 수단과 남수단 부족 간의 갈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악하고 혼란한 일이 이 땅에서 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 시기와 다툼으로 자기를 추구하며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지혜,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두 부족민이 땅의 것을 찾아 주님을 거역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사람이 되어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을 씌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태국서 10대 범행 살인사건 잇따라...경찰, 청소년 범죄 집중 단속



태국에서 10대들이 저지른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0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방콕 수안루앙 지역 한 시립학교에서 전날 오전 조희 직후 14세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과도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

학교 수업은 전면 취소됐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용의자는 피해자가 2주간 자신을 때리고 돈을 요구하며 괴롭혀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그의 정신 상태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동부 사깨오주 아라냐쁘라텟 지역의 연못에서 중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CCTV 등을 통한 수사 결과 13-16세로 추정되는 5명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연못에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이 이들을 체포했다. 10대들이 끔찍하게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경찰은 전국적으로 청소년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섰다.

또각 숙위문 경찰청장은 사깨오주 경찰에 모든 비행 청소년 기록을 보관하고, 오후 10시 이후 집 밖에 있는 10-15세를 면밀히 관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논타부리주 등 청소년 범죄가 자주 발생하지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는 특수작전팀을 파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단속에도 10대의 칼부림 사건이 또 발생하자 학부모와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찻찻 싯티판 방콕시장은 어떻게 학교에서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냐며 시립학교에 학생이 흥기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보안 검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한1서 2:1-2)

하나님, 태국 10대 청소년들의 빈번한 범죄 소식에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태국의 다음세대를 붙잡히 여기서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부딪히게 하사 회개하여 더 이상 죄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태국의 청소년들이 근심이 아닌 기쁨을 주는 자들이 되어, 모든 죄를 이기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 한국, 불특정 다수 위협 ‘살인 예고·모방범죄’ 증가·법안 강화 제안

최근 ‘신림역 흉기 난동’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살인 예고 사건과 모방범죄가 증가해 검찰과 경찰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끝나고 경찰 공권력 낭비가 극심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찰청은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과 함께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국가적 손해 등 상당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협박죄나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고 있는 살인 예고 범죄는 처벌 수준이 경미하고 모호해 혐의의 중대성에 맞춰 적절한 형량이 부여될 수 있는 ‘공중협박죄’ 도입을 제안했다. ‘공중협박죄’는 공중을 위협하고자 하는 살인·상해·살인 예고글 등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로마서 13:9-10)

하나님, 분명한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이 세대의 범죄가 말세의 고통하는 때의 모습임을 보며 더욱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강력한 처벌과 법 제정으로 이를 막아 보지만, 죄인의 마음 그 중심을 변화시키시는 생명의 법이 아니면 안 되기에 죄로 말미암아 굳어진 자들의 마음을 진리로 비추시고 기경해 주옵소서. 이러한 범죄로 인해 사회가 서로를 불신하며 사랑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증인들을 일으키사 주의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승리하였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소서.

▲ 멕시코, ‘마약 펜타닐 소비 금지’ 헌법에 추가

멕시코 정부가 치명적인 마약 펜타닐 소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헌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마약류, 특히 펜타닐과 같은 화학 약물이 국민 삶과 보건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강조하며 해당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18-49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펜타닐 남용으로 인한 미국 내 사망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처 정책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헌은 ‘멕시코에서 대량의 펜타닐을 생산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부인했던 그간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멕시코 정부는 다음 달 중 의회에 관련 개헌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로마서 8:2,6)

하나님,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를 무너뜨리는 합성 마약의 소비를 법으로 금지하기에 이른 멕시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마음을 전부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자들이 복음을 듣고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일이 강력한 규제와 징벌로 될 수 없고 오직 마음 중심을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